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대학은 가라면서..”

정문주(원광대학교)*

백승환(한양대학교)**

최현희(한양대학교)***

조준호(동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국내 교육 정책과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년제 실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에 있어 우선적으로 2013년 전국의 42개의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을 공개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눈덩이 표집을 거쳐 일차로 7명을 모집했다. 이후 자료 포화도를 위해 2차 추천을 받아 7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14명을 표집하였다. 자료 조사를 위한 면담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7명씩 총 4회기에 걸쳐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면담을 실시했으며 학생들의 일일 스케줄을 고려하여 인터뷰 시간은 각 회기마다 50분 내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필고사로 부터의 자유’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 불평등의 해소에는 의문을 남겼으며 수행평가과정에 있어서 ‘무임승차’, ‘평가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었는지 혹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었다’. 대신 진로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자유학기제는 한학기 제공된 일회성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과 함께 이전에 실시되었던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비교현상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인식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일부 탐색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자유학기제, 교육정책, 질적연구, 8년연구, 교육과정

* 제1저자: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jcमतetes@naver.com)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공동저자: 동원대학교 교무처 교직원

I. 서론

“대학은 가라면서...”

관자(管子)[권수(權修)]편에 따르면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은 나무이며,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니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본질은 PISA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핀란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유성열, 정광순, 2018).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음악, 예술, 인성 등 전인발달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며 2016년 교육개정 시에도 이러한 틀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여전히 PISA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유경훈, 임중현, 김병찬, 2017). 그리고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교육제도만큼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대학 입학자격시험인 SAT는 1901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부분적 수정은 있었으나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강승호, 2007).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해방 이후 74년간 23번 바뀌었고, 미국의 SAT를 참고하여 만든 입시제도인 수학 능력 시험은 25년간 11번 변화했다. 평균 잡아 3년에 한번 꼴로 제도가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이와 같은 변동성은 흔히 교육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집단의 이상과 방향성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권이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쉽게 활용했기 때문이다(김민희, 2018).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대권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가 그 예일 것이다(강재태, 유영주, 2017).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이러한 탄생 배경 때문에 박근혜 정권 이전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자유학기제 취지와 본질에는 찬성했지만 실제 학교 적용에는 우려를 드러내었다(이가연, 2013; 손희권, 2013). 이는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조혜영, 2017; 황은희, 장지현, 양현경, 2019). 박근혜 정권 이전, 연구에서는 ‘미래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김나라, 최지원, 2014; 김진숙, 2013).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시작되고 자유학기제 정식 시행을 위한 연구 학교 도입 이후 출간한 연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행할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증진 및 직무부담 관련한 것들이었다(김이경, 민수빈, 2015). 그리고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이 변화해야한다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김이경, 민수빈, 2015). 즉, 어차피 도입될 제도였기 때문에 교육계는 빠르게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역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에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자유학기제’를

반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과 조직원들이 자유학기제를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했을 뿐이다(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그리고 정부는 점진적 제도 도입을 위해 2년간의 연구 학교 운영을 하고,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에 전면 실시했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물에서 자유학기제는 도입 이전 우려 및 지연 요청과 다르게 도입 이후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임종현(2016)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경우 초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부담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빠르게 각 학교 마다 가진 자원으로 교육변화를 맞이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경우 역시 자유학기제가 지필고사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진행하는 제도라는 것에 자유학기제를 ‘노는 학기’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교육 증가에 대한 부담감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동안 자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교우관계가 긍정적이게 변하는 것을(하정희, 김명희, 조영아, 김상희, 2018)경험하면서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가 다른 방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김월섭, 2017).

그러나 교육부(2013)가 발표한 자유학기제의 본질은 교우관계 증진에 있지 않았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협회(PEA)가 중심이 되어 진보주의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1933~1941년 8년간 실시한 미국 교육과정 개혁 실험인 ‘8년 연구’(정병오, 2013; 이윤미, 2015)에 있었다. ‘8년 연구’는 기존에 진보주의 교육이 학습자의 사고력·사회적 행동·학습 태도 등은 개선하나 기초 지식이나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종래의 의문에 답하고자 진보주의 교육협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보주의 교육협회는 미국 초·중학교에서 경험주의 교과과정의 실험 및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을 8년간(고교 3년과정, 대학5년과정)추적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보주의 교육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단행한 6개의 실험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교 급에 비해 훨씬 학업성취가 높았음을 증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의 ‘8년 연구’를 근거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국내 입시위주의 교육방향과 과정을 개편해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유학기제 초반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연구 학교들은 과거 학교에서 시행했던 단편적인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과 비슷한 활동들을 자유학기제 동안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활동은 자유학기제를 ‘미래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기간으로 알려지게 한 것이다(정윤경, 2016).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닌 흥미위주의 단편적인 직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전부였던 것이다(강재태, 유영주, 2017). 더구나 자유학기제가 제공한 ‘지필고

사로부터의 자유'는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여지영, 채선미, 2016). 이후 김진영(2018)은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계층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를 알아보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며,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상위권 학생은 성적 변화 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의미이며 중,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유의미하게 상승했지만 성적 순위의 변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Park(2017)의 [사교육비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유학기제 동안 중, 저소득층의 사교육은 감소했고, 고소득 층의 사교육은 증가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자유롭게 선행학습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정부의 취지대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미래의 꿈과 끼를 찾을 자유'를 제공했는가를 탐색해보는 것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

물론,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정의는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 매뉴얼(최상덕, 2013)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자유'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소극적 의미는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이며, 적극적 의미는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을 위한 자유로서 "교육과정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이를 이정인, 유재봉(2016)은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Isaish Berlin이 말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자유학기제의 '자유'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현재 자유학기제를 체험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거나(여지영, 채선미, 2016; 조계중, 2015), 운영학교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홍후조, 임유나, 장소영, 2013)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자유학기제의 자유가 입시 학년이 된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자유학기제의 목표가 실제 현장에 도입되고, 적용한 내용들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내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더불어 실제 자유학기제를 경험했던 학생들이 이야기한 질적 연구는 전무하다. 단순히 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분석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표면적으로 물어본 것 연구 정도이다(김달호, 2015). 자유학기제 도입이 학생들의 '미래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자 실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미래의 꿈과 끼를 어떻게 찾았는지 혹은 찾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제공했던 자유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구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탐색하기 위해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해석을 이끌어내고자 질

적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현 교육현장에서 지필고사로 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자유학기제의 취지인 ‘미래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자유학기제 체험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가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교육 정책과 실행에 대한 시사점 및 자유학기제 이후 자유학년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모델

선행연구와 교육부 자료에서 나타나는 자유학기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교육부,201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정인, 유재봉(2018)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틀에 각 ‘자유’ 영역별 학생들의 체험을 유목화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1은 이를 영역별로 구분한 틀이다.

<표 1> 자유학기제 자유의 구분 틀

자유 구분	자유학기제의 자유	교육정책
소극적 자유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	교육과정상의 자유
적극적 자유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찾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을 위한 자유	교육방향으로서의 자유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Merriam, 1998)를 찾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시절 자유학기제를 체험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실제 입시학년이 되었을 때 자유학기제가 입시와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자유학

기제를 체험하고 시간이 흐른 뒤 입시학년이 된 학생들이어야 했다. 이에 2013년 전국의 42개의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전국 단위에 비해 시행학교는 적었기 때문에 참여자 공개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본 연구진은 두가지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 표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주변 교육기관 및 청소년들이 모이는 종교기관, 지역 센터 등에 협조를 얻어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진들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에게 알린 후 본 연구진과 관계없이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소개 받았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모집은 전형적 모집방법의 하나로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목적적 표집방법인 눈덩이표집(Merriam,1998;Patton,2002)을 실시하여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 총 14명(여: 9명, 남: 5명)을 모집하였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표집수 결정은 Merriam(1998)이 제시한 FGI에 적절한 인원인 8~12명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 각각 7명씩 총 14명을 선정한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N=14)

구분	대상자	진로 영향	진로특성	성적	부모의 SES
1차 집단 공개 모집	1 영주(여)	없음	·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고민	1등급	중~상
	2 기준(남)	없음	· 코끼리 조련사라는 직업에 관심	5등급	중
	3 선건(남)	TV	· 컴퓨터 관련 분야에 관심	5등급	중~하
	4 가연(여)	없음	· 진로 미결정	5등급	중
	5 수연(여)	동료	· 보험설계사	5등급	중
	6 우현(남)	모(母)	· 물리치료학과 진학 희망	4등급	중
	7 예슬(여)	언니	· 화학 관련 분야 진학 희망	2등급	중
2차 집단 추천 모집	8 진영(여)	부모	· 의사(아버지영향: 부(父)직업 의사)	1등급	상
	9 진희(여)	없음	· 취직(돈많이 주는 곳)	5~6등급	하
	10 현도(남)	부모	· 교수(부모영향: 부모직업 교수) · 특이점: 무슨과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음	1등급	상
	11 선영(여)	없음	· 일단 대학가는거	2등급	중~상
	12 현지(여)	없음	· 취직(아무데나) · 고민 중	3등급	중~하
	13 진건(남)	없음	· 부모는 대학을 원하지만 현실적으 로 아무 대학을 가는 것은 돈 낭비	2~3등급	하
	14 현화(여)	없음	· 아무 생각 없음 (돈 벌어야 하니 취직할거 같음)	4등급	하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질적 연구 방법 중 Cresswell(2007)이 제안했던 ‘자유학기제’가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적합한지 우선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현상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대상이 되는 자유학기제의 현상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선입견과 관련된 선지식, 선 이해 등에 대한 괄호 치기, 자료수집 및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질문하기, 수집한 자료 분석하기, 현상에 대해 기술하기, 본질에 대해 기술하기를 하였다. 그리고 연구 자료는 연구대상자들의 체험이 담긴 경험적 기술자료,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원 추적, 다양한 매체에 담긴 자유학기제 관련 동영상 및 시청각 자료, 선행연구등을 활용하였다. 체험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2018년 8월 첫 주 주말을 시작으로 초점 집단 면담을 시작하였다. 이는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고등학생인 것을 감안하여 평일보다는 주말에 모이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첫 1회기 면담의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표집한 인원 7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장소는 구성원이 편하다고 여겨지는 장소 4군데(스터디룸, 학교 회의실, 종교기관 회의실, 사회복지센터 회의실)중 투표로 통해 종교기관 회의실로 장소를 확정지었다. 이후 연구진 3인이 먼저 장소로 이동하여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일일 스케줄로 인하여 인터뷰 시간은 각 회기마다 50분 내로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 참여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서면 동의도 받았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연구진 4인이 전사하였다. 전사한 모든 기록은 다시 Membercheck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참여자들이 삭제제를 원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Giorgi(1985:10~19)의 기술적 현상학 연구 방법의 4단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수집한 자료를 심층 인터뷰 직후 당일 날 전체 전사(transcription)하였고, 인터뷰 과정에서 관찰된 내용이나 느낌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집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자연적 태도를 취하며 반복해서 읽어 나갔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진술내용이나 기술이 애매한 부분은 다시 인터뷰 녹음 자료를 청취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기록한 자료를 읽으며 자유학기를 체험한 학생들이 보고하는 현상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미단위를 구분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자유학기제 자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미 간에 전이가 일어나거나 명백하게 차별적인 기술내용이 있는 부분을 텍스트 중간 중간에 다른 색의 펜으로 표시하며 구분하였다. 세 번째로 2단계에서 도출된 개의 의미

단위 중에서 중복되거나 구조를 형성하는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의미단위들을 제외한 최종 의미단위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의미단위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transformation)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전환된 의미단위를 기초로하여 자유학기제의 두 개의 ‘자유’의 의미구조 틀에 경험을 통합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순차적이거나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연구의 시작으로부터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 반복적이고 누적적이며 순환적으로 2명의 연구자가 병행 하며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질적연구 전문가이며 방법론 교수1인과 교육학 박사 1인과 교육행정박사1인이 내용 분석에 대한 평정 및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최종 분석자료와 기술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받고 의미 왜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와 결과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터뷰 일정을 포함 신상정보와 진술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정보공개의 수준등을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인 관계로 인하여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tion),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네가지 측면을 제시하며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자이며 교육학 박사 1명, 현상학 연구자 1명과 함께 자료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들과 비교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성(applicatio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본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자료를 확인하며 주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일관성(consistency)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보여주었으며,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다른 출처의 자료 내용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선 이해를 명시하고,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가치관 등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여 수집된 자료와 분리하여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의 차원에서는 자료의 다각화(triangulation)와 함께 텍스트의 의미요약과 학문적 전환단계에서는 동료 보고(peer debriefing)를 거쳤으며 자료 분석의 순서대로 모두 문서화한 후 보관하였다. 연구의 확증성(confirmability)을 위해 감사기록(audit trail)을 통해 생성된 자료들과 문헌들을 체계화하고 분류화하여 연구책임자의 개인 사물함에 전자 열쇠로 잠금보관했다.

III. 연구 결과

1. 경험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체험하고 시간이 경과한 이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자유학기제가 미친 영향 유무 및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진술한 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어, 이를 다시 연구의 틀에 맞게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17개의 의미단위인 핵심어를 추출하였고, 핵심어를 유목화하여 ‘수행평가’, ‘지필고사’, ‘허울뿐인 진로 탐색’, ‘교우관계’, ‘진로선택’의 5개의 구성내용을 확인하였다. 이후 구성내용은 각 시점별로 ‘자유학기제 동안’과 ‘자유학기제 이후 일반학기’로 하위영역화 하였다. 이 하위영역은 다시 자유학기제의 추진방향이자 연구의 틀인 소극적 자유인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인 ‘교육방향으로의 자유’의 2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3>은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추출을 영역구조화로 구체화 한 것이다.

<표 3> 자료 분석을 통한 영역 구조화

영역	추진 방향	하위영역	구성 내용	핵심어
소극적 자유	가. 교육과정상의 자유	1. 자유학기제 동안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	1) 수행평가	가) 부담이 적음 나) 버스타는 애들 (무임승차) 다) 평가과정에 대한 불신 라) 사교육 증가 마) 대놓고 놀아요
		2. 자유학기제 이후	2) 지필고사	가) 적응이 안되서 어려움 나) 후회, 대학은 가라면서 다) 차이에 대한 자각
적극적 자유	나. 교육방향으로의 자유	1. 자유학기제 동안	1) 허울뿐인 진로탐색	가) 가위바위보에 져서 나) 재미위주로(흥미위주로) 다) 현실 반응 라) 실제 도움되지 못함 마) 다양한 체험 없음
		2. 자유학기제 이후	2) 교우관계 1) 진로선택	가) 친구따라 강남간다. 가) 도움되지 못함 나) 가족들의 영향 다) 스스로 결정함

가. 소극적 자유(교육과정상의 자유)

자유학기제가 의미하는 자유 중 소극적 자유는 일명 교육과정상의 자유로서 ‘지필

고사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에 연구 대상자들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체험한 수행평가와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 기존 방식의 지필고사를 보면서 그들이 체험한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1. 자유학기제 동안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

1) 수행평가

가) 부담이 적음

자유학기제에는 시험은 없지만 평가는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기술1:면접1]

선견45: 그게 부담감이 조금 더 덜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수행평가를 하면 한 학기 내내 엄청 바쁘게 보내긴 하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한 학기 했던 거를 전부다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때 아는 문제인데도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수행평가는 긴장해서 실수하지는 않으니깐요

위에 연구 참여자의 보고 [기술1]처럼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의 취지 중 하나였던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보고는 이 부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기술2: 면접2]

수연97: 자유학기제 동안엔 시험공부를 안해도 되잖아요? 그걸 하면.. 시간이 많아서 그냥. '아 맞다? 하면 되겠다~'이려고 하고 수행평가기간에 수행평가만 몰두 하면 되요.

연구자59: 수행평가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네요?

가연172: 네~별로..(가연:웃음)아~근데요.. 이게 자유학기제라서 부담이 안되는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요?

수연99: 원래부터 부담이 없었지~

가연173: 이것 때때 부담이 없다는 보다는 그냥 아예 신경도 다들 안 쓰는?

위의 두가지 보고는 모두 결과적으로는 수행평가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위의 [기술1]만을 봤을 때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지필고사를 안보니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2]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 자유학기제

가 제공한 자유가 아니라 수행평가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행평가 외에 지필고사와 같은 다른 평가제도가 실시되면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평가가 온전히 학생들에게 ‘평가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했는가로 정의내리기에는 다음의 기술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 버스 타는 애들(무임승차)

수행평가는 특성상 개인 평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팀플로 행해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기술3:면접2]

영주23:수행평가가 너무 많은데, 보통 팀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팀을 하면서 꼭 버스 타는 애들이 있고 끌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 중학생이잖아요 보통 이제 조장이 있자나요? 그러면 조장은 ppt랑 이런거를 엄청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 버스타는 애들은 ppt만 만들어진 거를 끄고 교과서를 읽어요.

[기술3]에서 표현한 “버스타는 애들”은 올슨(Mancur Olson)이 1965년 저서 『집합행위론』에서 언급한 정치경제학의 개념인 무임승차이론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자로 표현할 수 있다. 집합체가 생산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공재(公共財)의 성질을 갖는 경우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은 공공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편익만을 향유하고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동안 실시한 수행평가과정에서 학생들이 체험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 뿐만이 자유학기제 관련하여 학생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다음은 인터넷상에 검색한 글 중 일부이다.

저는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치렀고 1학기 기말고사를 한 번 봤어요. 지역이랑 학교에 따라 1년이 다 자유학년제인 경우,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인 경우 등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 때의 분위기는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부분 놀자관입니다!! 수업시간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 정말 많고, 시험을 안보니까 공부를 안하구요 선생님들도 진도를 좀 덜 나가시던가 설명을 대충하시는 경우 도 봤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안나오고 당장 내가 이걸 공부를 안해도 되는데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자거나 숙제하지 않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수행평가는 대부분 1학기와 비슷하게 치뤄지거나, 조금 더 활동적으로 치뤄집니다. 하지만 성적표가 점수화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서 별로 신경 안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글로 된 성적표가 몇 장이 나가는데, 수행평가를 못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거지 선생님들도 나쁘게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생가부 내용과 같이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점수화되지 않는다는 건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하시는(?) 또 다른 단점이 되겠조ㅠㅠ 그래서 특히나 1-2때 수행평가 버스타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ㅎㅎ...

[그림 1] 자유학기제 관련 중학생의 인터넷글(출처:https://cafe.naver.com/mathall/1698652)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버스 타는 애들을 제지할 방법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다) 평가과정에 대한 불신

[기술4: 면접4]

진영48: 믿을 수 없어요. 사실 수행평가는 결국 선생님이 하는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애가 제대로 참여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개네들 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현도56:아예 안하는 애들끼리만 있고 잘하는 애들끼리만 있으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강제로 조장 뽑고 제비뽑아서 팀 선정하고 그래서 친구가 하루는 선생님한테 가서 말했대요 재는 아예 아무것도 안했다고 그런데 평가 점수가 같았대요. 뭐 시험이라도 있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이 [기술4]에서는 수행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평가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음의 사교육 증가와 같은 문제점 역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라) 사교육 증가

[기술5:면접3]

수연24: 그런 애들(공부하는 애들)은 자유학기제 할때, 공부를 더 빠르게 해놔서 시험볼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애들 있었는데 (그런애들은)거의 없고 거의 없고.. 했어요. 개네들은 ~거의 전교1,2등 돌아가면서.. 둘이 엄청 친하고 그 둘만..아래는 아래애들끼리 친하고~

영주52: 그런데 사실 오히려 그때(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이 더 세져요. 노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냥 자유학기제 시키니까 '와 시험 안 본다! 좋아!' 하고 노는데 조금 더 생각하는 애들은 '애네가 놀 때니까 나는 이때 더 많이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학원에서 엄청 시켜요. 그리고 진짜 학원에서. '다른 애들이 놀 때 공부를 해야 나는 편하다.'우리학원에서 이렇게 시키지만, 다른 학원에서는 더 열심히 시킬 거다. 너네도 따라가야 한다. 너네 놀 때 애들은 공부한다,

[기술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학기제 동안 '필기고사로부터의 자유'는 실제 모든 학생들에게 자유를 제공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역설적이게도 자유학기제가 제공한 자유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은 것이다. [기술6]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의 일부가 연관되어 드러나기도 했다.

[기술6: 면접4]

현도61: 일단, 저는 사교육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 사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저희 이모가 생각나요. 이모가 이해찬 세대인데 그 뭐냐 ‘단군 이래 최악의 돌머리?’(참여자 다 웃음)

연구자82:단군이래 최저학력세대?

현도62: 네, 그거요. 그때도 그랬던데.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보면서 하나만 잘 하면 된다고, 나라에서 엄청 그랬나바요. 그래서 엄청 공부안했다고 그런데 정작 수능은 불수능에 어딜가나 이해찬 세대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낙인찍히고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며 막 이모가 흥분하면서 속지말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진건48: 아~저도 기억나요. 중학교때 선생님이 자기가 이해찬 세대인데라고 그러면서 자유이런거 이야기 하지 말고 니들은 공부나 하라고,

[기술6]은 실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여과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이해찬 세대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대입제도 변화를 예고했을 때 그 대상이 되던 학생들을 말한다(조재호,2007). 그때 학생들은 지금 자유학기제 도입처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습했다. 그러나 이해찬 세대 첫수능인 200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고 특기하나만 있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제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신재영,2005). 그러나 자유학기제동안 위에서 언급한[기술5,6]것처럼 사교육이 증가한 것처럼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정말 ‘자유롭게 잘 논 학기’로 기억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의 “마)대놓고 놀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 대놓고 놀아요

[기술7:면접4]

현도85: 사실 이걸 기회다라고 노는 애들도 있긴 하죠.

진희96: 자유학기제어뻘어? 라고 물어보면. 응 잘놀았지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사실 자유학기제 동안 뭐했어? 라고 물어보면 수행평가 열심히하고 재미있게 놀았다? 대놓고 놀았다. 지금이 기회다. 근데 어차피 자유학기제가 아니어도 놀았을 테니까.

[기술7]의 보고처럼 자유학기제 동안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놀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교육 증가와 더불어 수행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자유학년제 시행시 지금의 평가제도를 개선

하거나 다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학년이 진급하여 일반학기제 동안 경험하고 있는 지필고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상의 자유인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더 심도 깊게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유목화한 구체적 기술이다.

가-2. 자유학기제이후

2) 지필고사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2학년 때 학생들은 지필고사를 처음 경험하고 당황하게 된다. 더구나 학제에서 중학교 2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등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시기로 학습의 양적 질적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때를 학생들은 자유로웠던 평가제도에서 ‘한번’에 결정 나는 시험을 준비 없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가) 적응이 안되서 어려움

[기술8: 면접3]

영주43: 1학년 때 저희는 시험을 한번밖에 안 봤자나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시험을 본게 아니죠. 근데 이제 2학년을 올라오면 그대로 중간기말 중간기말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1학년 때 한번밖에 안 봐서 시험이라는 거에 적응이 안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보는 시험은 OMR카드도 안 쓰고, 그냥 정말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험공부 안 해도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에 대한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이게 뭐지?

[기술8]을 보면 갑자기 치러지는 지필고사는 학생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이었지만 실제 학생들이 호소한 문제는 “어차피 대학은 가라면서”에서 알 수 있었다.

나) 후회, 어차피 대학은 가라면서

[기술9:면접4]

선영:75: 처음 시험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사실 전 엄마가 대학은 가야하니까 지금 이렇게 친구들과 놀면 안된다. 아니 친구들이 놀 때 넌 더 열심히 해야해 라고 했을 때 뭐야, 다 놀아 그랬거든요.

진희72: 근데 엄마 말이 맞아(하하하하), 나만 놀아 (둘이 동시에) 하하하

선영76: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좀 해둘걸 아 한학기를 그냥 버려 버린거죠. 어차피 대학은 가야하는데

진희73: 맞아요. 애랑 진짜 많이 놀았는데, 근데, 전 후회는 없어요(어깨으쓱). 어차피 전 놀았을 테니까요. 근데 저희반에 엄마가 겸사인 애가 있어요.(순정: 맞아 맞아 재수없었지) 근데 개는 진짜 자유학기제 동안 애가 얼굴이 아주 개네 엄마가 아예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가 애 데리고 막 학원가고 과외만 10개한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심지어 무슨 화장품? 관련해서 프로그램 하는데 그냥 담임한테 말했나, 교장선생님한테 말했나 여튼 애를 빼버렸어요. 공부시킨다고 근데 개가 2학년때 전교 1등하고 전학갔어요. ㅋㅋㅋ

[기술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학기제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만들었다는 기존 연구(김달호,2015)의 보고 처럼 실제 본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도 드러났다. 더욱이 본 연구는 집단 면담으로서 참여자들이 함께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다보니 자각과 성찰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다음은 당시에는 자각을 못했으나 면담과정 중 각자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한 연구 참여자가 느낀 점을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보고는 다음의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 차이에 대한 자각

[기술10: 면접4]

현지32: 전 학원을 안 다녀요.. 사실 좀 사교육이라고 해야하나 과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애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공부한거네요. 설마 설마 했는데 와..진짜. 사실 학년 올라가고 2학년 되고 시험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전 제 머리가 나쁜가. 사실 성적에 신경 안쓰면 시험에 굳이 매이지 않는데 그리고 전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요. 대학 안갈거니까. 대학을 가는게 어렵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는 성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던데..

[기술11:면접4]

진건98: 저도 대학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못가요. 성적도 나쁘고, 뭐 등록금도 그렇고 학자금도 어차피 빛이나까. 어쨌든 자유학기제 시행하고 수행평가하고 지필고사 안보고 그런 거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시험 안보니까 성적으로 애들 가르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반에서 공부잘하는 애들, 좀 사는 애들은 티가 났어요. 그냥 아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개들은 엄청 공부 했어요. 막 수행은 수행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막 공부하면서 자유학기제 그게 뭔 소용이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가야되는거, 자유학기제 끝나면 어차피 기존과 다르지 않게 시험보는데 근본적인게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이다. [기술11]에서 나타난 것처럼 만약 학생들이 ‘성적에 신경 안 쓰면’ 그냥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즉, 대학에 가지 않으면 자유롭고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술11]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부류는 분류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자유일까 아니면 계층화 현상의 심화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으로서 자유학기제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적극적 자유의 부분으로서 교육방향성의 자유에서 유목화하여 구성하였다.

나. 적극적 자유(교육방향으로의 자유)

다음은 자유학기제의 본질인 적극적 자유의 추구 교육방향으로의 자유로서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배양을 위한 자유”를 확인하고자 했다. 실제 자유학기제 기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어떠했는지, 프로그램 체험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데 도움을 제공했는지, 마지막으로 역량배양을 위한 자유를 얻었는지 이에 대한 탐색을 실시해보고자 했다. 학생들의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나-1. 자유학기제 동안

1) 허울뿐인 진로탐색

가) 가위바위보에 저서

[기술12:면접1]

선건12: 저는.. 수학퍼즐이나 독도 알아보기

연구자59: 그럼 독도 갔어요?

선건13: 영상으로만...

연구자71: 수학이랑 독도관람을 영상을 통해서 했고,.. 수학을 선택하게 된 그런게
있나요?

선건15: 가위바위보 저서...

[기술12]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체험활동이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역량 배양과도 관련이 없었다. 심지어 활동 선택 역시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이 아니었다. [기술13]은 다른 참여자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 흥미위주로 진행한 것을 보고한 것이다.

[기술13:면접2]

연구자99: 수학퍼즐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걸 했어요? 잘 와, 와 달지가 않
아서

선건18: 마방진하고...

연구자56: 마방진? 약간 스도쿠 같은 (웃음)

선건19: 네

연구자41 : 어땠어요? 그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선건21: (절레절레) ..단지 재미있었다?

연구자42: 물음표네

선건22: 재미있었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근데 일단 저는 재미위주로 했어
요.

[기술13]처럼 일단 자유학기제가 추구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초기 자유학기제가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와는 다른 이유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술14]는 실제 자유학
기제를 주제로 수행평가를 했던 체험을 보고한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누구인지가 드러났다.

나) 현실반응

[기술14:면접3]

영주40 : 저희가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자유학기제를 하는 중이었던 거 같
은데,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그거
에 대해서 보고서라든지, 아님 뭐를 써서, 토론을 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어
요. 근데 음... 그거를 조사를 해서, 직접,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토론을 하
다보니깐, 애들이 그냥 주변 친구들이 봤을 때도 다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게 있고, 우리가 조사를 직접해봤을 때도, 보고서를 쓸 때도 ‘실제로 이거는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는 그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쓸 때도 부정적으로 썼었고, 토론할 때도 이‘거는 별로다!’ 라는 식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행평가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깐 ‘이게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학기제 수행평가 시간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반응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평은 결과적으로 ‘이게 좀 아니다’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기술15]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기술15:면접3]

영주42: 선생님도 자유학기제를 그렇게 좋게 보시는 편이 아니에요. ‘1학년 때 이런 거 조금 시킨다고 애 네가 정말 진로에, 하는 게 있을까?’ 이런 게 선생님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그래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죄다 그냥 단발성이 좀 많고

가연35: 아냐 우리 그래도 연계가 되긴 했는데 뭐 그것도 담당 선생님이 있어야 연계가 되요

연구자52: 그 연계 프로그램은 직업이나 진로와 관계가 있었나요?

가연36: 그렇지 않고 그냥 쪽 뭔가 그런거 있잖아요 I, II, III이렇게 대충

[기술15]는 실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인지했던 교사의 반응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시 첫 번째 교사의 직무 부담은 증가하고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학교단위로 시행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부분들이 실제 참여자의 보고[기술15]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교우관계 증진에 대한 언급으로서 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것의 일부이다.

2) 교우관계

가) 친구 따라 강남간다

[기술16:면접3]

기준76 : 그냥, 거의 친구들 때때 선택한 거죠

연구자103: 친구들과의 사이는 어땠어요? 더 좋아지거나?

수연115: 아니요~

연구자104: 전혀 상관없었어요?

수연116: 잘~~..

연구자105: 친한 친구들끼리만..?

수연117,가연209: 네~~잘 놀았다~

가연29: 저희가요 일단..그때(중1) 이거를.. 진로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때 잦아요.
1학년 때..그렇다 보니깐.. '아 이거! 나 이걸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아 이
거 재미있겠다' 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애들아 이거하자' 친구랑 다 같이
해서 놀러가거나.

[기술16]의 보고처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원래 친했던 친구들끼리 프로그램을
같이하는데 의의를 둔다/ 다음[기술17]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한 참여자의 보고이다.

[기술17]

진희92: 음.. 처음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선택할 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무할
거냐? 그래서 뭐한다 그래? 그럼 나도 그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은
마음 맞는 아이들끼리 하거든요. 근데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경우는 뭐 가위바
위보를 하기도 해요.. 만약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못하게 되면 이상한 것
을 같이 하거나, 아님 각자 하죠. 그래도 친구들하고 한학기 붙어있으면서
이것저것 하다보니 서로를 더 잘알게 되요. 좀 끈끈해지죠.

위의 참여자는 결국 진로 프로그램에 개인적 선호도가 아닌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우관계 증진 요인에 대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긴다. 이에 대해 [기술18]은 현실적인 참여자들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기술18:면접4]

선영67: 저번에 어디에서 이런 거(FGI)비슷한거 해서 가서 이야기 한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전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한번 갔다가 다음에 못가서..그때도 교우
관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딱히 교우관계 증진? 새로운 친구 사
귀기? 물론 없지는 않았어요. 친구랑 계속 붙어있고 같이하니깐. 그런데 그
게 증진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학교랑 프로그램하다보면 새로운 친구를 만
나긴 해요. 근데 그때뿐 이에요. 지금 연락하는 친구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에서 드러난 교우관계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존재하
지 않았다. 단지, 초반에 프로그램 선택 시 친한 친구와 함께 선택한다가 기본 전제

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보고했을 뿐이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이후 일반학기로 학년이 진급하고 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자유학기제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유목화 하여 구성한 결과이다.

나-2. 자유학기제 이후

1) 진로 선택

자유학기제 이후 단적으로 실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경험했던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었는가에 질문에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기술19],[기술20]과 같이 보고하였다.

가) 도움 되지 못함

[기술19:면접2]

우현8: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어요.

연구자65: 자유학기제동안 학교에서 진로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 거 있어요?

가연186: 저희는 검사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커리어넷이나 근데.. 뭘 봐주는 것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진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도움이 안 되었다고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회기에 진로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 학생도 있었다. 이는 향후 자유학년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20:면접4]

현화: 좀 지금 웃겨요. 솔직히 말해도 되요? 자유학기제 한학기 해서 학교가 이야기는 진로를 찾았나? 아니요 그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웠나?. 자유학기제 아니어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면 저 처럼 자유로워요. 특히 저처럼 대학 생각없으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면서 기분이 너무 나쁜거예요. 사실 저는 나름대로 수행평가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자유학기제에 만족했거든요 혼자라면 우리집 사정에서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하고 이야기 들으니 제가 바보같았구나. 남들은 자유학기제에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난 뭐했지? 마방진? 이런거 하고, 독도 지킴이 한다고 동영

상 보고 그렇게 한학기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고 좋다고 막 그거 설문지 할 때 좋다고 체크했는데 현타왔어요. 뭐 자유학기제가 있든 없든 저같은 애는 계속 공부를 못할거고, 꿈도 못찾죠, 꿈이나 꿀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저보고 빨리 졸업해서 취직하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지금 마트에서 일하는데 마트에서 일하다가 승진도 하고 그러다 대학가고 싶으면 벌어서 가면 된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현실이 그러네요.

위의 언급은 다음 자료와 비교하며 분석할 것이다. 다음의 [기술21] 역시 본 연구 참여자의 보고이다.

나) 가족들의 영향

[기술21:면접2]

우현9: 일단 물리치료학과를 먼저 선택한거는 고1 거의 끝날 때쯤에 선택했는데 물리치료학과 선택한 이유는 엄마랑 누나가 다 보건계열이어서 그 쪽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 같은데

예슬7: 저는 일단 연년생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과인데 언니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할게 많다고 계속 이야기 해주니까. 그런가보다 하죠

진영125: 음 전 아빠가 의사인데 엄마는 저보고 의사되라고 하고, 아빠는 이건 좀 웃긴 이야기인데 의사되지 말고 의사 남편 만나라고 했어요. 의사는 힘드니까. 근데 일단 장래희망, 진로란에는 의사라고 쓰긴 해요.

위와 같이 대부분 학생들은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학기제기간 동안 체험한 활동의 영향이 아니었다. 또한 기존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 역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보고가 대다수였다. 즉, 체험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이고 자신의 진로 선택은 진로 선택인 것이다. 그리고 총 14명의 학생 중 두 명만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으며 한명은 진로선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다) 스스로 결정함

[기술22:면접3]

영주125: 전 그냥 스스로 결정한거라고 하고 싶네요.

선건40 : 전 해커 그런거 하고 싶은데, 여튼 컴퓨터 관련 일을 할거예요,

연구자72 : 선건학생은 컴퓨터에 관심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선언40: 영화 보면 키보드 막 두두하는게...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진로결정은 가족들의 영향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국내 교육 정책과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년제 실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유학기제가 현 교육현장에서 지필고사로 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자유학기제의 취지인 ‘미래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었는가 혹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가였다. 이를 위해 이정인, 유재봉(2018)이 제시한 자유학기제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17개의 의미단위인 핵심어로 요약하였고, 핵심어는 유목화 되어 ‘수행평가’, ‘지필고사’, ‘허울뿐인 진로 탐색’, ‘교우관계’, ‘진로선택’의 5개로 구성했다. 이후 구성내용은 다시 각 시점별로 ‘자유학기제 동안’과 ‘자유학기제 이후 일반학기’로 하위 영역화 하였다. 이 하위영역은 자유학기제의 추진방향이자 연구의 틀인 소극적 자유인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인 ‘교육방향으로의 자유’의 2영역으로 상위유목화로 구성하였다. 연구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참여자들 집단 면담 기록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한 교육 불평등의 해소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는 학생들에게 ‘대놓고 놀 기회’를 제공하여 ‘잘 놀았어요’라는 공통적 내용의 결과물을 내었다. 그러나 원효원(201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가과정에 있어 지필고사 대신 행해진 수행평가는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집단이 생기면 드러나는 ‘무임승차’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과정에 대한 불신, 자유학기제는 한학기 일뿐 이후 교육과정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등이 보고에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본 참여자의 보고에 의하면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일수록 학업성취가 좋은 학생들이었으며, 자유롭게 놀았다고 표현한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는 ‘나름’ 만족하였지만,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성적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만족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험보지’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결국 기존 연구(김달호, 2015)에서 나타난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가 모든 학생들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라는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 시험이 없는 기간은 입시준비를 위한 더 많은 사교육을 해야하는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보고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에게 모두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김진영(2018)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학업성취가 높고, 부모의 SES가 상위계층일수록 사교육이 증가했으며 부모의 SES가 낮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만족했으며, 지필고사에도 수행평가에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사회계층화 현상의 완화가 아닌 더 견고히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시험 부담은 결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 및 해석이 자유학년제 실시에 있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의 취지인 ‘미래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연구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었는지 혹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었다’ 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학교가 혹은 자유학기제가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김종성, 이병훈(2016)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진로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의 영향 및 가정환경의 영향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물론 이는 전반적인 추적조사와 부모의 SES를 동시에 양적 질적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하남과 김기현(2001)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로 세습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학 진학 결정이 달라졌으며, 자유학기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인식하는 것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한 아이들 혹은 ‘그렇게 결정 지어진’ 아이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실시했던 흥미위주의 경험에 만족했다. 즉 자신의 환경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적극 참여하며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마음껏 잘 놀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담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학기제가 아니어도 놀아요’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가정환경에서 진학이 선택지에 들어있지 않으며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돈 버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대입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저 재미있게 노는 것이 있으면 재미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루한 장소였다. 특별히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체험을 해서 특별했다거나, 시험이나 평가가 없어서 재미있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어차피 대학은 가야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는 자유학기제 동안 사교육을 받느라 더 힘들었다고 표현했다. 어차피 대학을 가는데 자유학기제 기간에 수많은 수행평가를 하면서 입

시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어렵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최근 최상훈, 박대권(2019)의 연구에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 공급자 인식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유학기제동안 자녀의 사교육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미래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프로그램 적용은 입시공부를 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 진로결정이나 선택의 영향은 주변 인물 주로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동안 실시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직업연계와 이어지지 않았으며, 흥미, 재미 위주로 단발성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초기부터 본 연구까지 개선점으로 드러난 문제이다(정광순, 2013;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 도입을 급하게 서둘렀던 태생의 한계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제 교육부에서 표명한 자유학기제는 미국의 '8년 연구'를 근간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진로 직업 관련 프로그램 도입이 주가 아니라, 수업방향의 개선 및 교육방향의 개선에 있다. 8년 연구의 배경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자들이 당시 지배적이었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도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이윤미, 2015). 그러나 그 고민의 한결같은 끝은 아무리 학교가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교육관행을 바꾸고 싶어도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제쳐두는 위험을 부담하며 벗어나기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대학과 중등학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진보교육협회는 '중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 중등학교의 협조방안 모색 위원회'를 조직하여 20여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1년간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진보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교사-학생관계 등 교육관행을 바꾼 학교의 졸업생들이 가장 소극적으로 교육관행을 바꾼 학교들보다 더욱 우수한 성과를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 교육과정보다 진보적 교육과정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현 대학입시위주인 교과과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진학 이후의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는 그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대놓고 노는 학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기술6:면접4]에서 보고한 것처럼 이미 국내에 한번 시도했던 전력이 존재한다. 김대중 정권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해찬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신재영, 2005). 이와 함께 대학교 입시 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시행되던 야간자율학습과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해찬 1세대가 응시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전 몇 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어렵게 출제됨으로써 학생들의 점수가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찬 세대들은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신재영, 2005; 조재호, 2007; 박봉서, 2018). 그리고 불수능(김종구, 2002)이라고 불려진 2002년 수능 이후 일부 학교들은 다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아무리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지속했다. 교육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대로 백년지대계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교육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을 변화시킨다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련 있고 영향을 준다. 누군가는 학부모일 것이고, 누군가는 학생이었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학생이었으며 학부모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의 변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제도는 한 사례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현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점도 중요하다. 이미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200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다. 기존의 산업세대, 정보화 세대라고 구분짓던 세대와는 다른 ‘DIGITAL NATIVE’세대인 것이다(Bayne, S., & Ross, J., 2007). 국경이 없는 디지털이 익숙한 새로운 세대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계가 없는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에게 기존에 입시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든 것은 교육제도가, 정책이 세대를 반영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퇴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없이 제도만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무의미한 일이다. 이는 이미 우리가 이해찬 세대를 통해 한번 경험했던 일이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 안갈거면 원래 신경 안쓴다”. 이미 이들에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대학을 갈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한 해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학을 연구하고 제도를 고민하는 교육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은 이미 사회계층화 현상, 부의 세습, 직업의 세습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사회계층화 현상을 완화하고, 직업이 세습되는 것을 막고 실력이 우선이 되는 공정한 사회를 꿈꾼다. 그러나 이병훈(2017)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저 계급론’이 등장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과 끼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자유학기제를 도입한지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다. 다양한 연구들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면 주로 교우관계 증진에 있었으며, 그 시간과 돈을 들여 제공한 것은 단편적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리고 이후 학제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학기는 단순히 노는 학기로 전락해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유학기를 고등학교와 그리고 이후 학생들의 삶의 방향과 연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부의 연구(신철균, 황은희, 송경오, 2016; 신철균, 2018)에서는 자유

학기제 확장을 위한 일반학기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발달 궤적을 질적, 양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실제 자유학기제 동안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자유학기제를 만족했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이나 선택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성취변화에 유의미성은 실제 상위권 학생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학업성취의 순위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에 따라 사교육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고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사회계층에 따른 자유학기제 체험 학생들을 추적조사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가 확대되어 자유학년제가 실시될 내년을 위해 현 자유학기제를 주도하고 있는 학교들의 교사 및 교직원과 학부모들에 대한 질적 양적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가 아닌, 자유학기제 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교우관계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로 교우관계 증진을 예로 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학기제 도입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정확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교육목표와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적합한 도구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대상 역시 학생외,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들의 관점에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심층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 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적인 결과 혹은 대다수 자유학기제를 체험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서울시내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사회계층화 현상, 부모직업의 영향등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현상적 관점에서 자유학기제를 보고 참여자 대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 체험은 학생들에게 자유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회계층에 대한 자각을 제공하였으며, 현 우리의 사회 현상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하여 자유학기제 체험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 학기 혹은 일 년간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후 교과과정에 대한 연계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교육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 (2007). 미국 SAT 의 평가내용과 타당도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교육평가연구**, 20, 125-150.
- 강재태, 유영주 (2017).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및 운영의 실제 현황. **현대교육연구 (구 중등교육연구)**, 29, 27-46.
- 김나라, 최지원 (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 김달호 (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5), 179-202.
- 김민희 (2018).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변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 129-158.
- 김월섭 (2017) 자유학기제 시행과 기대, 우려,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59-68.
- 김이경, 민수빈 (2015).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181-203.
- 김중구 (2002). [특집: 수능이 뭐길래] 수능을 바라보는 언론의 고정된 틀. **중등우리교육**, 70-73.
- 김종성, 이병훈 (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296-330.
- 김진숙 (2013). 아일랜드 연계학년제 (TY) 와 한국 자유학기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23, 163-183.
- 김진영 (2018). 자유학기제 (2015-2017) 수업 전과 후의 학생 만족도에 따른 성적변화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293-316.
- 박봉서 (2018). 대학입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정, 김영태 (2018). 자유학기제 관련 신문 기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683-707.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손희권 (2013).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헌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5(1), 151-180.
- 신재영 (2005). 교육개혁 체험 연구—‘이해찬 1 세대’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5, 163-187.
-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

구소, 16, 27-55

신철균, 황은희, 송경오 (2016).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 실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 165-190.

신철균 (2018). 자유학기제의 확장을 위한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 원리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1-22.

여지영, 채선미 (2016).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698-709.

원효현 (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형성평가 방안 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8(1), 289-299.

유경훈, 임종현, 김병찬 (2017). 핀란드 교육개혁의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3(1), 319-352.

유성열, 정광순 (2018). 2014 핀란드 교육과정으로 본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2(4), 171-196.

이가연 (2013). [進路] 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 **진로교육연구**, 26(3), 1-22.

이병훈 (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157-179

이윤미 (2015). 1930년대 미국의 중등교육개혁-‘8년연구’의 재조명. **한국교육사학**, 37(4), 131-161.

이정인, 유재봉 (2016).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적 방향 탐색. **교육학연구**, 54, 1-20.

임종현 (2016).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양가성 현상의 발견과 의미. **교육행정학연구**, 34, 99-128.

조재호.(2007). 지니계수로 추정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하향평준화 분석-‘이해찬 1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25, 1-19.

정광순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중학교 수업 개선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 399-421.

정병오 (2013). 한국형 ‘자유학기제’, 해외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문).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49-52.

정윤경 (2016). “자유학기제”의 개혁적 의미와 과제. **교육철학연구**, 38(4), 105-129.

조계중 (2015). 자유학기제에 따른 현장체험 경험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과 태도 분석. **한국산립휴양학회지**, 19(4), 89-97.

조혜영 (2017).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과제. **인문사회** 21, 8(3), 353-375.

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이상은, 김은영, 유지명, 정민주, 송주연 (2014).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훈, 박대권 (2019).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 공급자의 인식 및 대응 연구. **교육정책학연구**, 26, 31-56.
- 하정희, 김명희, 조영아, 김상희 (2018).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학교사회복지**, 42, 139-162.
-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 (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9(2), 33-68.
- 황은희, 장지현, 양현경 (2019).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5(3), 299-318.
- Bayne, S., & Ross, J. (2007, December). *The ‘digital native’and ‘digital immigrant’: a dangerous opposition. In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pp. 24-32). (SRHE) (Vol. 20). ac.uk/staff/sian/natives_final.pdf [Accessed 20.3. 2013].
- Berlin, I. (1991). *Isaiah Berlin: a celebration*. (pp. 12-6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esswell, C., Djokic, S., Ochije, K., & Macpherson, E. (2007). *Modelling of non-linear electronic loads for power system studies*: (pp. 21-32). A qualitative approach. In Pro
- Giorgi, A. (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p. 41-48). Duquesne.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pp. 52-69). Jossey-Bass Publishers,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
- Olson, M. (1965). *Th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pp. 11-18).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ark, Y. (2017). *Study on the Effect of the Free Semester Policy*. (pp. 9-12). KDI Policy Study, 13.
- Patton, M. Q. (2002). Designing qualitative studies.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 230-246.

기타

-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https://cafe.naver.com/mathall/1698652.

논문 접수: 2019년 9월 16일

논문 심사: 2019년 11월 17일

게재 승인: 2020년 3월 26일

<ABSTRACT>

**The Stor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Free Semester System
“You told me to go to university...”**

Cheong Moon Joo(Wonkwang University)

Baek Seung Hwan(HanYang University)

Choi Hyeon Hui(HanYang University)

Jo Jun Ho(Dongwo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omestic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by tracking down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goal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school year. For this purpose, it sampled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free semester system on the 42 pilot schools across the country in 2013. After sampling, each of the seven selected a total of 14 people, and four interviews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ree semester system provided the study participants with 'freedom from the written examination'. However, the solu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remained questionable and exposed various problems such as 'free ride' and 'no confidence in assessmen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Second, through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answer to whether the students were able to grow their dreams and talents or were influenced by career choices was all 'no'. As a result, the free semester system so far has been nothing more than a one-off program offered in a semester. Nevertheless, various opinions and a comparison with the nation's education system that was previously implemented were also revealed. The last study that we saw may b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n empirical basis for the need for linkage with higher education and the need for changes in social awareness.

★ **Key words:** free semester system, education policy, FGI, qualitative research, 8 years of research, education system